

단단히 무장하고 중생 구제 실현토록 수호

높은 수미좌에 강건한 자세로 앉아 있는 약사유리 광여래, 가느다린 긴 손가락을 모아 합장하는 아리따운 일광보살과 월광보살, 찬연한 금빛 육신의 이들 약사삼존은 주색 자색 청색의 명료한 채색과 다채롭고 풍부한 장식으로 단연 그 존재가 돋보이는데, 이들을 이렇게 돋보이게끔 하는 또 다른 것은 바로 이들을 주변에서 외호하는 십이신장(十二神將)의 존재.

약 3년 전 미국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불화를 조사하던 중, 한국 작품이 한 점 더 있다며 우연찮게 소개받은 것이 이 '약사삼존십이신장도'였습니다. 정리 안 된 유물 창고 속에서도 이 작품에서 발산되는 서릿발 같은 기개는 도저히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막 낚아 올린 물고기처럼, 마지막 터치 후 붓의 물감이 채 마르기도 전인 듯, 그렇게 작품의 색과 선은 광채를 내며 생생히 살아 있었습니다.

약사삼존의 주변으로는 진기한 모습의 십이신장이 서 있습니다. 이들의 검은 피부와 개성 강렬한 기괴스런 표정, 견갑의 무복 표현은 견고한 포즈의 단아 근엄한 약사삼존과 절묘한 대비를 이루어, 금빛 육신의 삼존을 더욱 환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십이신장의 강렬한 표정 약사삼존과 대비 '압권'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의 옷에 가득 시문된 타원형 꽃문양은 거리를 두고 보면 마치 귀갑문(龜甲文) 같이 보이는 독특한 효과를 냅니다. 길게 뻗은 검은 머리 가닥과 경직된 듯 흐르는 옷자락과 더불어 강렬한 인상을 주는 양 협시보살은 무엇보다도 먼저 감상자의 눈에 포착되지만, 이에 못지않게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뒤에 가득 포진한 십이신장입니다. 보기 드문 회화적 완성도를 보이는 이들은 각각각색의 표정과 몸짓으로 그 활달한 개성이 넘칩니다.

이 작품 하단에 있는 붉은 구획 속 금글씨 화기에는 '대비전하(大妃殿下)가 주상전하(主上殿下)의 장수와 나라의 안녕을 위해 채색화 석가수도화도 2점, 채색화 약사도 1점 및 지장도 1점, 순금화 처성광화도 1점을 발원했다' 라고 쓰여 있어 왕실의 대비마마가 의뢰한 총 5점의 작품 중 한 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의 화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휘와 문장 패턴 그리고 존상의 유계, 대화, 인체 프로포션 등 작품의 형식적 특징을 고려해 볼 때, 16세기 조선왕실의 궁정양식이라고 일컬어지는 문정왕후 발원의 일련의 작품군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본 작품 역시 16세기 조선전기로 추정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단 이들 문정왕후 관련 작품군의 필선과 화격을 비교해 볼 때, 본 작품의 명확하고도 날카로운 필력과 그 풍부한 회화적 묘사력은 월등해 16세기 궁정양식의 전범(典範, 모범적 모델)으로 당시 양식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 역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위 '인명 없는 미술사'라 여겨지는 전통 속에서,



불화 속의 명장면 (11)

美 보스턴미술관 소장 '약사삼존십이신장도'



『약사삼존십이신장도』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 조선전기(16세기). 십이신장: 오른쪽 밑에서부터 위로 공비라(黃)·법절라(卯)·미기라(辰)·안저라(巳)·알이라(午)·산저라(未), (왼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인달라(申)·파이라(酉)·마호라(戌)·진달라(亥)·초두라(子)·비갈라(丑) (필자추정)

통일신라시대 미술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소조의 마술사 양지(良志)·고려불화의 신묘한 경지를 개척한 서구방(徐九方)·불화를 표현주의적 회화로 승화시킨 조선전기의 이자실(李自實)로 이어지는 맥락을 잇는 작품임에 틀림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약사삼존십이신장도' 역시 이자실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작품은 '송유역불'이라는 불교탄압의 먹구름을 한숨에 걷어버릴 듯한 밝고 명료한 필치로 그 바로크적 활달함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준다는 약사여래가 그려진 불화에 각종 무기와 갑옷과 투구를 투철하게 무장한 십이신장이 등장하는 연유는 무엇일까요.

약사여래가 보살로서 수행할 때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열두 가지의 큰 서원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12대원(十二大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원 광명보조(光明普照 스스로를 지혜의 빛으로 밝혀 가없는 세계를 비추리라), 제2원 수의성변(隨意成辨 드높고 빛나는 위력으로 중생을 모두 비추어

깨우치리라), 제3원 시무진물(施無盡物 필요한 물건을 마음껏 얻게 하여 궁핍함이 없게 하리라), 제4원 안립대승(安立大乘 샅된 길에 빠져 있더라도 편안한 대승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리라), 제5원 구계청정(具戒淸淨 청정한 법을 닦아 삼취계를 갖추게 하리라), 제6원 제근구족(諸根具足 온전치 못한 몸과 정신을 가진 일체 불구자를 완전케 하리라), 제7원 제병안락(除病安樂 온갖 병을 없애어 몸과 마음을 안락케 하리라), 제8원 전녀득불(轉女得佛 여인의 몸으로 필박 받는 자 있으면 장부로 태어나 성불케 하리라), 제9원 안립정견(安立正見 모든 유정에서 비롯되는 악마의 그물과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바른 길로 이끌리라), 제10원 제난해탈(除難解脫 속박과 재난 능력 등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리라), 제11원 포식안락(飮食安樂 굶주림을 참지 못해 나쁜 짓을 한 자라도 배부르게 하리라), 제12원 미의만족(美衣滿足 험벗은 이에게 좋은 옷을 주어 만족케 하리라).

십이신장은 이상의 12대원이 실현되도록 수호하는 호법신입니다. <약사본원경> 12대원은 온전한 몸을 받지 못한 불구자들, 병을 앓아도 돌보아줄 이조

어둠 속 중생에 현실적 이익 베풀겠다는 직접적 단언 상징

차 없고 의사나 약은 물론이요 친지도 없고 머무를 집조차 없는 가난한 이들, 학대받는 여성, 감옥에 갇힌 재소자들, 당장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려 민생고에 시달리는 이들,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거룩한 다짐입니다.

즉 사회의 모든 약자와 은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극한 어둠 속의 중생들에게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물질적인 이익을 베풀겠다는 직접적인 단언입니다. 이러한 대원을 실현시키려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단단히 무장하고 굳건히 추진시켜야 하겠지요.

설법을 듣고 있던 대중 가운데 십이아차신장이 있었습니다. 이 십이신장에게는 각각 7000명의 아차가 권속으로 팔려 있었는데, 이들은 함께 "저희를 권속이 맹세코 중생을 호위하여 이들이 온갖 재난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원하는 바를 남김없이 만족하게 이루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약사신앙 유래의 십이신장은 중국 자생의 12지(十二支) 신앙과 습합되어 방위 및 시간을 관장하는 수호신으로 통일신라시대부터 능묘의 병풍, 석탑 기단부 등에 응용되어, 중생의 안녕뿐만 아니라 나라의 안위를 지키는 호법신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원화조 강건한 십이신장이, 밤낮 12시를 차례로 지키고 또 열두 방향(동서남북 사방을 셋씩 나누어 세분화한 것)에서 시시각각으로 밀려드는 8만 4000의 번뇌를 막아주고 있다니, 오늘날도 잠 못드는 고민의 심연 속에 팬스레 몸을 뒤척일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강소연(미술사학자·홍익대학교 겸임교수)

세계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蠟鑄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범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식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종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함목리 406-28 www.seungjongsong.co.kr / E-MAIL : seungjongsong@hotmail.com
대표 : 범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대한민국 명장)